

# 국대·득점왕 맹활약... 나상호 “도전 멈추지 않겠다”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시즌 16골로 K리그 2 '득점왕' 프로 2년차에 '특급 기대주' 부상 "광주 FC PO 진출해 골 넣었으면"

올 시즌을 앞두고 20골을 외쳤던 광주 FC의 나상호가 '득점왕'이라는 꿈을 이뤘다.

나상호는 동계 훈련이 진행되던 지난 1월 '20골'을 예고한 적이 있다. 광주의 차기 에이스로 주목을 받은 나상호는 특급 신인으로 눈길을 끈 두 현역이 15골을 넣겠다고 각오를 밝히자 "그럼 난 20골을 넣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20골이면 득점왕을 노려볼 수 있는 수치였다. 그리고 2018시즌이 끝나는 날, 나상호는 16골에 성공하며 K리그 2 득점왕에 올랐다.

안산 그리너스와 시즌 최종전이 열린 지난 11일 나상호는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종료 직전 입맛에 딱 맞는 자리에서 프리킥 키커로 나섰다.

"이건 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나상호는 준비했던 대로 또 박진섭 감독이 주문했던 대로 70-80%의 힘으로 정확하고 자신 있게 공을 때려 멋진 프리킥 골을 넣었다.

팀의 5위를 확정하는 쐐기골이자 나상호의 득점왕을 알리는 골이었다.

FC 안양의 알렉스가 1골 차로 나상호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 나란히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됐고, 전반 9분 알렉스가 먼저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나상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만약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경기장득점에서 앞선 알렉스에게 득점왕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광주 팬들의 눈길은 나상호의 발끝에 쏠렸다. 나상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던 것을 쏟아부었고 득점왕이 됐다.

나상호는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승리하고 싶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경기를 이기고 나서 돌아보자고 동료끼리 이야기했다. 홈에서 승리해서 기쁘다"며 "(알렉스가) 한 골 차이로 따라오니까 골 욕심이 났지만 급하면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팀이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년 차에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서 영광이다"고 언급했다.

나상호는 프로 두 번째 시즌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고, 12일에는 '벤투호'의 일원으로 평가전이 열리는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도 올랐다.

나상호에게는 말 그대로 '운수 좋은 해'다. 나상호는 "초반에는 잘 풀리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다. 한 번 골 맛도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아시안게임과 A매치 대표팀도 따라왔다. 운이 좋은 해"고 웃었다.

꾸준하게 달려온 그는 '운'을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는 피나는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 부상으로 몸과 마음고생이 심했던 지난 시즌이 좋은 교훈이 됐다.

나상호는 "부상이라는 큰 악재를 피하려고 몸 관리에도 신경 쓰고, 감독님 코치님께서 훈련하다가 기복이 있다 싶으면 잡아주셨다. 코치님 감독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기적 같은 2018시즌을 돌아보면서 박진섭 감독



광주 FC의 나상호가 지난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2018시즌 폐막전에서 16골에 성공하면서 득점왕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33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슈팅을 하는 나상호. <광주 FC 제공>

을 언급한 나상호. 박 감독도 올 시즌 MVP로 나상호를 꼽았다.

박 감독은 "MVP를 준다면 나상호에게 주고 싶다. 잘한 것도 있지만 올 시즌 금메달도 따왔고, 국가대표 선수로도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점수 주고 싶다"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대표 다녀오면 많은 부분 배우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상호가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좀 더 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감독은 "플레이할 때 여유가 없다. 경험 부족의 나이는 아니다. 프로 2년 차지만 빛을 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고종수 감독이 황인범에게 한 말처럼 좀 더 까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생각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할 것 같다"며 더 큰 선수를 꿈꾼 나상호는 또 다른 목표 'A매치'를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어느 상황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를 부각

시키는 플레이를 하겠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벤투 감독님 스타일은 잘 모르지만 볼 받는 위치라든가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사이 공간에서 잘 나와서 잘 받고 연결하고 침투하고 그런 플레이를 해야 나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유명한 선배님들이 있는 자리지만 주눅 들지 않도록 열심히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상호의 또 하나 남은 꿈은 광주의 승격 도전이

다. 오는 19일 아산의 거취에 따라 광주의 준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도 결정된다. 안산과 최종전에서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를 쉬어야 하는 변수도 있지만 나상호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나상호는 "시즌 초에 (두)현석이 행한테 질 수 없어서 20골을 이야기했었는데 4골이 부족하다"며 남은 4골을 채울 기회를 간절히 바랐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 거물 된 박성현...시즌2 몸값은?

다음달 후원계약 대부분 만료 ... 올 LPGA 3승 등 기량 절정

한국 프로 골프에서 남녀 통틀어 최고 인기 스타로 군림하는 박성현(25)은 인기를 반영하듯 얼마 안가 몸값을 자랑한다.

모자, 셔츠, 현대, 신발, 그리고 캐디백에 붙어있는 기업과 상품 로고의 값어치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현은 2017년 미국 진출을 앞두고 하나금융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내용과 금액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간 10억원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은 물론 신인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 세계랭킹 1위 등 각종 타이틀을 땀을 흘리며 따오는 보너스는 따로다.

이런 거액을 내놓고 하나금융은 박성현이 경기 때 쓰는 모자 정면, 모자 왼쪽 측면, 셔츠 왼쪽 팔뚝 부분, 바지 왼쪽 허벅지 부분에 하나금융 계열사 로고를 새겨넣었다.

의류 브랜드 빈폴과 LG 전자도 각각 셔츠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로고를 넣는 대신 연간 3억원에 이르는 돈을 썼다. 고진모터스는 셔츠 뒷면에 로고를 넣는 대가로 1억원 짜리 아우디 Q7 승용차를 제공했다.

이런 박성현의 스폰서 계약이 올해 상당수 만료된다. 대한항공의 항공권 후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오는 12월말이면 박성현이 이른바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벌써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관심사는 두갈래다. 박성현이 새로운 스폰서를 맞이할지가 첫 번째 관심사라면 2년 전보다 얼마나 더 오른 계약금을 받을지가 두 번째다.

지난해 극적인 US여자오픈 우승과 신인왕·상금왕·올해의 선수를 석권했고 올해도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3승을 거두고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던 박성현이 또 한번 '장외 흥련'을 날릴지 관심사다. /연합뉴스



## 메시, 빛바랜 멀티골

FC바르셀로나, 베티스에 3-4 패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이하 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가 부상에서 돌아온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 활약에도 2년 만에 홈 경기 패배의 쓴맛을 봤다.

바르셀로나는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우에서 열린 2018-2019 라리가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레알 베티스의 역습에 와르르 무너지며 3-4로 패했다.

바르셀로나가 안방 캄 노우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 패한 것은 2016년 9월 알라베스전 패배 이후 2년여 만이다. 또 메시가 두 골을 넣어도 바르셀로나가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2경기 홈 무패 행진은 허무하게 깨졌다. 바르셀로나는 패배에도 7승 3무 2패 승점 24로 리그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한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라베스에 모두 승점 1차이로 쫓기게 됐다. /연합뉴스